

이야기가 있는 文學風景



第1部 幸福의 傳染에 對하여

Pandemic



CAFE 情談

- [페스트] 감염된 쥐나 벼룩을 통해 전파. 1347~1351 사이에 유행. 유럽 인구 중 약 2,500만~5,000만(1/3~60%) 사망.
- [콜레라]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 제1차 팬데믹(1817~1824). 제2차 팬데믹(1829년), 제3차~제6차 팬데믹, 제7차 팬데믹(1961~현재)
- [코로나]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 감염자의 비말, 에어로졸 또는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



幸福의 傳染 _社會的 傳染

나의 행복 확률	
1단계-나와 친구	약 15% 증가
2단계-친구의 친구	약 10% 증가
3단계-친구의 친구의 친구	약 6% 증가

_ 크리스타키스 Nicholas Christakis & 제임스 파울러 James Fowler

CAFE 情談

- 행복은 3단계까지 전염된다.



名心寶鑑

與善人居면 如入芝蘭之室^{하여} 久而不聞其香^{이나} 即與之化矣^요

與不善人居면 如入鮑魚之肆^{하여} 久而不聞其臭^나 亦與之化矣^니

丹之所藏者^는 赤^{하고} 漆之所藏者^는 黑^{이라} 是以^로 君子^는 必慎其所與

處者焉^이니라

_ 『명심보감』 교우편

CAFE 情談

-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나 곧 더 붙어 그 향기와 동화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비린내 나는 생선 가게에 들어 간 것과 같아서 오래 되면 냄새를 맡지 못하나 또한 더불어 그 냄새와 동화되나니, 붉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니고 있으면 검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함께 있는 곳을 삼가야 한다.



第2部 글 香氣 머무는 詩의 뜰

名詩 鑑賞





名詩 鑑賞

유월이 오면 하루 종일
향기로운 마른 풀 위에 내 사랑과 함께 앉아
산들바람 부는 하늘에 흰 구름이 짓는
햇살 눈부신 높은 궁전들을 바라볼 거야

그녀는 노래하고, 나 그녀 위해 노래를 짓고
하루 종일 달콤한 시들을 읽어야지
아무도 모르게 건초로 지은 우리 집에 누우면
오, 인생은 즐거워라
6월이 오면

..로버트 브리지스 「6월이 오면」

CAFE 情談

- 감각적 이미지의 향연 · 소박한 사랑과 여유 ·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아름답다.
-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낭만을 극대화 한다.
-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글脈의 흐름을 짚다

- 맥파 문학상 심사 규정표 -

순	참가 번호	작품명	서술 능력 (20)	시상 전개 (20)	비유 압축 (20)	문학성 독창성 (25)	맞춤법 (10)	규정 준수 (5)
1								
2								
3								
4								
5								

詩想展開에 對하여!

전개 방식	핵심 원리	한 줄 요약
시간 흐름	아침에서 저녁으로, 봄에서 겨울로	흘러가는 시간에 감정을 엮음
시선/공간 이동	멀리서 가까이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움직이는 눈길과 발길을 따라감
선경후정 先景後情	풍경 먼저, 감정은 나중에	날씨가 흐리네, 마음이 울적하다
수미상관 首尾相觀	처음과 끝을 똑같이	처음 했던 말을 마지막에 다시 강조
대립적 심상 관계	차이를 극대화하여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시각적, 정서적 착시 효과	어두운 밤하늘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원리

CAFE 情談

- [시상의 전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시상)을 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적, 정서적, 혹은 구조적으로 펼쳐 나가는 과정. 시의 내용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독자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의 설계도**.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1. 다음 중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시상 전환은 시적 긴장감을 낮추어 독자의 편안함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 B. 결말은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할 여백을 남겨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C. 선형적 전개를 주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을 따른다.
- D. 시상의 확장은 구체적 사물에서 보편적 의미로 나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CAFE 情談

- [정답] ㉠ 시상의 전환은 오히려 시적 긴장감을 높이거나 시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 A. 사물을 묘사할 때 가장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다.
- B. 독자에게 익숙한 구조를 제공하여 이해와 몰입을 돕는다.
- C. 시의 주제를 가장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D.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가장 복잡하게 묘사할 수 있다.

CAFE 情談

- [정답] ㉞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가장 복잡하게 묘사할 수 있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3.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할 때, 심사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 A. 각 공간에 대한 얼마나 정확한 묘사를 했는지
- B. 공간 이동의 물리적 거리와 속도
- C. 사용된 어휘의 화려함
- D. 각 공간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적 변화와 의미 연결

CAFE 情談

- [정답] @ 공간의 변화와 함께 화자의 내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관건이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4/10]

Q4. 다음 중 「인과적 전개」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묘사함.
- B.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잠이 드는 모습.
- C.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를 순서대로 나열함.
- D. 들꽃을 보고 문득 잊고 지냈던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낌

CAFE 情談

- [정답] ㉠ 외부 대상(들꽃)이 화자의 내면적 변화(그리움/슬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5. 시의 결말 부분에서 「여운」을 남기기 위해 피해야 할 태도는?

- A. 구체적인 이미지로 상황을 마무리함.
- B. 시의 메시지를 교훈적으로 직접 제시하고 강조함.
- C. 주제를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함.
- D. 의문형으로 문장을 맺어 질문을 던짐.

CAFE 情談

- [정답] ⑥교훈을 직접 제시하면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감동이 반감될 수 있다.
- [구체적] 문학에서 구체적 이미지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Ex: 지는 해가 붉은 핏물처럼 강물에 풀리고 있었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6 시상 전개에서 「전환」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 A. 사용하는 시어를 이전보다 더 쉽게 바꾸는 과정
- B. 시적 화자가 장소에서 이동하게 함.
- C. 시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시선의 변화를 통해 주제를 심화함.
- D. 시의 전체 분량을 늘리는 과정

CAFE 情談

- [정답] © 전환은 시적 흐름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주제적 깊이를 더한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7. 구체적 사물에서 보편적 의미로 나아가는 전개는 무엇인가?

- A. 시상의 확장
- B. 시상의 파편화
- C. 시상의 반복
- D. 시상의 축소

CAFE 情談

- [정답] ㉠ 개별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삶이나 철학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전개 방식이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8. 시상 전개 of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 A. 가능한 많은 비유와 상징을 넣는다.
- B. 단어의 수를 매 연마다 일정하게 맞춘다.
- C. 유명한 시인들의 문장을 인용하여 시작한다.
- D. 첫 줄과 마지막 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CAFE 情談

- [정답] @ 시의 시작과 끝이 논리적 혹은 정서적 고리를 가지고 연결될 때 시는 하나의 완성된 세계가 된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9. 독자가 시를 해석할 때 「여백」을 활용하도록 돕는 장치는?

- A. 시의 주제를 제목으로 정함.
- B. 연을 구분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씀.
- C. 모든 은유를 직유로 풀어 설명함.
- D. 상황을 암시하는 이미지로 시를 마무리함.

CAFE 情談

- [정답] ㉠ 이미지는 독자로 하여금 시적 상황을 시각적으로 상상하게 하여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다.



敘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10. 시상 전개 과정에서 「심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 독자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주어 깨달음을 주는 것.
- B. 대상을 관찰하는 단계에서 내면적 성찰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 C. 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격을 높이는 것.
- D. 문장의 길이를 점점 길게 늘여 나가는 것.

CAFE 情談

- [정답] ⑥ 표면적 관찰에서 존재의 본질이나 감정의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과정이 심화이다.



第3部 詩人の 노래 餘白의 노래

2606-별내 詩香이 피어나는 날



벌써 유월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삶이 아름답다는 말은 어쩌면 속임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저 살아온 궤적일 뿐, 그 안에서 거창한 의미를 찾기란 모호하기만 합니다. 절반쯤 지나온 이 길을 내가 스스로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살아내야만 했던 것인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의 걸음을 가늠해 봅니다. 내 생각보다 많을 수도, 혹은 훨씬 적을 수도 있겠지요. 삶이란 결국 남은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입니다. 삶은 적당히 쉽고 적당히 어렵습니다. 적당히 아름답고, 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치열하지도, 그렇다고 고루하지도 않은 채 하루가 흐릅니다. 아무도 남은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평범함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남은 시간은 결국 오늘의 연속일 테니까요. 누군가는 살아가고 누군가는 버터내는 이 시간 속에서, 유월은 또다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박정미 「유월이 오고 있다」

- 극단적인 희망이나 절망 대신, 적당히 불편한 삶의 무게를 담담하게 긍정하는 태도가 인상적이다.
- 거창한 미래가 아닌 오늘의 연속으로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현실적이고도 따뜻하다.
- 계절의 흐름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쓸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매우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덮이더니
비가 땅을 적십니다

굳은 땅을 촉촉이 적시고
수목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온갖 먼지와 더러움이 씻겨 내려가고
나무들은 샤워를 즐깁니다

한 해 농사를 축복하는 비는
대지의 목마름을 아는 신의 선물인가 봅니다.

땅과 수목이 목마를 때면
어김없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마흔여덟 시간 동안 이어지는
단비에 대지는 온통 단체 샤워 중입니다
하늘도 땅도 온통 회색빛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맑게 갓습니다

박양순 「젖은 초록의 시간」

- 비 오는 풍경을 대지의 단체 샤워로 표현한 점이 무척 신선하고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 가뭄 끝에 내리는 비를 신의 배려로 해석하며, 자연의 섭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흐린 회색 풍경과 대비되는 화자의 맑은 마음이 글 전체를 희망적으로 밝혀준다.

앞만 보고 달려온 유월의 오후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 한 줄기가
분주한 발걸음 뒤편에 은빛 십표 하나를 찍어 놓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지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잊고 지내던 나를 조용히 깨웁니다

비가 지나간 자리, 햇살 아래 풀잎 끝에 맺힌 물방울은
세상이 숨겨 둔 작은 거울입니다

그 속에서 오래 접어 두었던 꿈 하나가 돌아와
내 곁에 앉아 수줍은 얼굴로 피어납니다

지나온 날과 다가올 날들의 아득한 경계에 서서
나는 소나기가 돌려준 푸른 꿈을 안고
이제 깊어지는 계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김순희 「절반의 시간 앞에서」

- 소나기를 일상의 은빛 십표라고 정의한 대목에서, 바쁜 삶을 환기하는 시적 감각이 돋보인다.
- 물방울을 세상이 숨겨 둔 거울이라 표현하며, 그 안에서 꿈을 재발견하는 과정이 무척 서정적이다.
- 소나기 후의 정적 속에서 꿈을 안고 다시 걸어 나가는 결말이 매우 단단하고 희망적인 울림을 준다.

낡은 버스에 어린 딸과 가방을 실어 보냈습니다
 여린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나이
 애써 다독이며 타지로 떠나보냈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버스가
 가슴 한 편을 뜯어내듯 멀어져 갔습니다

유월의 햇살이 꽃히는 밭고랑에서 땀을 흠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눈물 냄새 났던 편지를 받았습니

무심한 듯 무성해지는 푸른 앞산에
 보이지 않는 뼈꾸기가 울고
 밭고랑에 선 어미도 그 소리에 맞춰 함께 읊니다
 한 줄기 바람이 묵묵히 스쳐 지나갑니다

윤순자 「유월의 바람」

- 가슴 한 편을 뜯으며 떠나갔다는 표현에서 자식을 떠나 보내는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 무심하게 질어가는 푸른 산과 그 아래에서 홀로 눈물짓는 어미의 모습이 대비되어 슬픔의 깊이를 더해간다.
- 눈물 냄새 나는 편지와 한 줄기 바람이라는 짧은 문장이야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애뜻함을 강렬하게 응축하고 있다.

그날 밤 비가 내렸고
유난히 서늘했다

해를 삼켜버린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윽조리는 일뿐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사과였다

사랑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결코 같지 않았다

그 밤의 봄은
우리에게만 유독 추웠다

최우인 「유월의 빗소리」

- 사랑할수록 더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 우리 아가라는 말이, 아이를 재우는 따뜻한 노래가 아니라 실수를 덮으려는 유일한 사과라는 해석에서 시적 슬픔이 극대화된다.
- 봄은 통상적으로 따뜻함의 대명사이지만, 이 시에서의 봄은 우리에게만 추웠다고 표현되어 있다.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봄날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는 혹독한 겨울 같았던 그날 밤의 정서가 아주 감각적으로 전달된다.



철포나리와 스토크를 심는다
하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진다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면
실눈 뜬 하늘이
개구쟁이처럼 웃는다

버들강아지 다녀가고
진달래 개나리 머물다 가고
산벚꽃 앵두꽃 흩날리더니

양귀비꽃 덩굴장미 나리꽃이
유월의 뜰에 가득하다

사랑보다 진한 열정으로
태풍보다 강한 아픔으로
하늘 실눈처럼 빛나는
꽃송이처럼

유월의 땅에
철포나리와 스토크를 심었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삶을
파종한다

채민신 「유월의 땅에」

- 비와 햇살이 교차하는 유월의 풍경을 통해, 시련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삶의 긍정적인 태도가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 사랑보다 진한 열정과 태풍보다 강한 아픔을 거쳐 도달한 두 번째 삶이라는 표현에서, 삶을 대하는 시인의 깊고 단단해진 내면이 느껴진다.
- 정성껏 꽃을 심는 행위를 자신의 삶을 새로이 가꾸는 파종으로 치환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THE END

Closeing Ment